조선인민군 제2 집단군 정치부장

김 학 천 소장

김 학 천 소장은 1915 년 2월 28일에 원동변강 우쑤리주 그로데꼬브 구역 신운촌 빈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그 당시 신운촌은 로시아 인들이 많이 살고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로시아 이름으로 야리차 촌이라고 하였으며 1928 년에 처음으로 꼴호즈 (협동조합) 가 조직되자 야리차 조합이라고 명 명 하였다가 농촌경리 협동화가 본격적 성격을 띠면서 당의 농촌에 대한 근본적 당적정치적 정책으로 되자 본 협동조합을 "빨랴르나야 스웨스다 (북극성) 라고 칭하였던바, 이 명칭은 한인들이 원동으로 부터 강제 이주 이후에도 금일까지 보존되고

있다 본 협동조합의 조직당시에는 한인들 이외에 로시아 사람들도 많은 조합원으로 입회하였었으나, 강제 이주와 관련하여 한인들만 중아시아로 이주하여 들어오고, 기타 민족들은 원동에 떨어져 없게 되였다. 회원들 중 절대 다수가 한인들이며 그 조합의 기본 지도자들이 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조합의 명칭도 그대로 가지고 이주하여 왔다. 1929년 농촌경리 협동화 초시기에 김경욱씨가 원동에서 20여호의 빈농민들로서 조직된 조합은 원동에서 8년간 굳어지고 회원들이 확장되며 150까지 증가되며 회원들이 농업을 경영하였으나 우즈베크스탄에 이주하여 온 후 조합은 더 확대되며 200여호의 농민들이 집단생활에 참가하였으며, 벼농사를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진행하던 우즈베크 원주민에 비하여 한인조합은 매 정보당 벼수확을 80-100 쎈타까지 내놓가하며, 생전에 경작하지 않던 목화 생산도 지방 기본민족들의 방조하에서 매정보당 40-50 쎈타의 수확(당시 평균 수확 30-15 쎈타)을 속출하였다. 그당시 협동조합 위원장에 김병화 선생이 일하시였다

김학천 선생은 원동에서 부터 극성 골호즈에서 강제 이주 전까지는 교원으로 일하시였으나 강제 이주 이후 1940년부터는 협동조합 부기원으로 다음으로 1945년에 북한에 나가실 때까지 부기장 겸 조합의 경제 부책임자로 아주 신임 있게 일하시였다. 바로 이 당시에 조합에는 경제 발전의 성과로 인하여 26명의 사회주의 로동영웅이 배출되였으며 협동조합 위원장 김병화 선생은 소련 이중 로동영웅 칭호와 2차에 걸쳐 금별을 수여 받았다. 김학천 선생도 교육사업을 버리고 조합 경리사업에 전근된 것은 인간의 높은 명예적 칭호에 호감되였어서, 또 어느정도 물질적 면에도 관심있

은가 닭이 없으나,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의 위업을 수행하는 군무
에 동원되라는 국가 공민의 신성한 업무수행에는 최대의 영
예로 생각하며. 부모 처자 다이별하고 공화국 군사동원부를
걸쳐서 급행차로 8년전에 억지로 리별하고 떠난 원동으로
나가게 되였다. 쏘련 조국전쟁 초시기, 즉 1941년 7-8월
독일 강도배들의 불의의 침공으로 야기된 독소전쟁 초시기, 그때
에 쏘련군대와 무고한 쏘련인민들의 피는 얼마나 흘렀으며 쏘련
의 영토는 얼마나 점령하였던 그때에도 한인들은 불신분자라고
군대 복무에 징병하지 않았었으나, 금일에 와서, 즉 독소전쟁
은 쏘련의 대승리로써 종말되었으나 무엇때문에 한인청년
들을 군대에 징병하며 원동으로 내여보내는지 짐작은 할수
있으나 정확한것은 아직 알수없었으며, 원동으로 내여 보내며.
한반도에 가까히 내여보낸다는것은 아주기쁜일이였다.
아직 정식 명령은 없으나 대일본 조국해방전에 통역관으로 참
가하게되리라는 예측적 언론을 많이들었던바 그 말들은 아주
기쁘고도 통쾌한 일이였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도 사랑스
럽은 말은 아마 조국일것이다 아직 학천 선생이 원동에서 살
고 있을때에 자기조국에서 일제에 굴복하여 더는 살수없는 조
건하에 로령지에 건너온 한인들이 항상 외우고 그리워하던 그
조국에 대하여 매일-매일 들으며 자라던 그 일을 오늘
특이한 조건에서 회상하게 된일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
면서 창문으로 원동땅을, 즉 선생이 태여난 고향땅을 바
라보게되였다. 원동땅은 조국은 아니나 선생이 출생하여 잔
뼈 굵은 부드럽게 정든땅이다 조국이라 이르면 이것은 우
선 명예가 있는 정치적의미에서 자기 목숨과 연결된 땅
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가 태여나고 자기 유년시대, 학창
시대를 지낸 이 땅도 어떻게나 정이 들었던지 빠르쏘베
쓰크 시를 지나 자기 협동조합이 주재하여 있던 안리의
농촌을 지날때에는 차창으로 그 현지를 내다 보면서 눈
물을 흘리였다. 7월 말일께에 우수리시 (여전 한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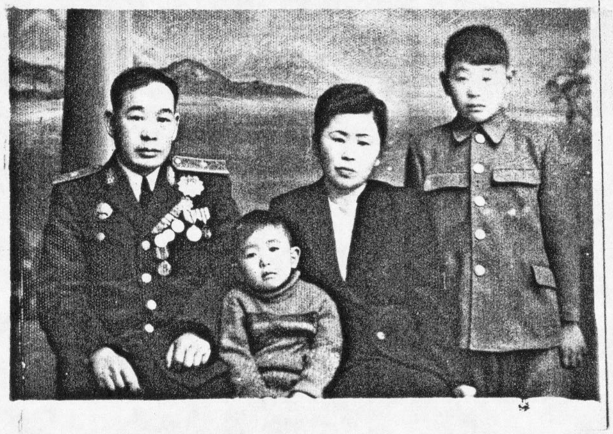
이곳에 있을때에는 소왕령이라고 불렀음) 에로 속하
여 제1원동전선, 25군단에 소속되여 동만국경훈
춘 방향에 배치되여 상부의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
었다.

사진은 1945년 9월에 평양을 해방한후 25군단
민전 사령부 번역관으로 계실당시 김학천 선생이다.

1945년 8월 9일 아침 5시에 소만국경을 돌파하고 훈
춘 방향으로 진공하여 그 당일로 훈춘시를 해방하고 학천
선생이 배속된 1618 딴크 여단은 거기에서 방향을 돌
려 북조선 국경도시 후릉시를 향하게 되였다. 후릉에서
처음 선조들의 고향땅, 조선의 흙을 밟게 되여 감개무량
한 감각으로 고향산천을 사랑스럽게 보면서 회령, 부령, 청
진-크나큰 항구도시를 걸쳐 함흥을 지나 9월 30일에야
평양시에 소련군 25군단 선발대와 같이 도착하게 되
였다. 평양에 들어선 25군단은 일제시에 평양에서 도청
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본부를 정하고, 거기에 군단 참모부
군단 정치부를 안치고 평양시 한복판에, 일제시 평양
시청 건물곁에 25군단 민전사령부를 조직하고 그사

령부 사령관으로 로마넨끄 소장이 임명되여 북한에 조직되여 있는 각종 한인기관들을 자기에게 복종식혀지도하게 되였던바, 쏘련으로 부터 북한에 도착한 전체 한인 통역원들도 전부다 여기에서 복务하였다.

김학천 선생은 북한에 도착되자 북한 인민군대 창건에 적극적으로 복务하게 되였던바, 처음에는 대대 군사고문의 책임번역으로 게시다가 1950년도 초기에 중국인민 해방군으로 부터 한인족 다수군인들이 북한에 넘어오게되자 보병 편성부대수가 대략적으로 증가되여 26개의 사단과 8개 군단이 조직되게 되였다. 김학천 선생은 1950년도 6.25 동족상잔 당시에 제 32사 정치부장으로 게시다가, 1951년 1월에 인민군대의 전반적 후퇴후, 32사가 동한 연길현에 배치되여 있을시 32사의 정치부장으로 승격되였으며, 1951년 7월에 32사가 38선 계선에 다시 남진하자 상부의 명령으로 동사단은 6군단에서 제적되여 제 2 야전군단에 배속되였섰다.



사진은 김학천 선생이 자기 가족과함께 1956년에 조선인민군 제 2군단 정치부장으로 게실시에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는 사모님 유또냐, 장남 김그리고리, 차남 김알렉싼드르와 함께 찍힌것이다.

김학천 선생은 제 2군단에 속하자 자기 직책을 아주영예롭게 생각하였던바 그것은 제2군단은 언제던 전련부대였으며, 제 2군단 사령관은 항일 빨찌산의 전설적 영웅이신

최현 장군이시며, 제2군단에 속한 전체 련합부대, 부대들은 항일 투쟁의 많은 전투경험들을 소유한 군관대들이였기 때문이였다. 당시 2군단은 동부 전선에 속하여 철원이남 양구, 인제 계선에 배치되여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고 진지전에 고착되고 말았다. 전연 전투부대들은 산등, 계곡들을 리용하고, 산고지 하천들을 리용하여 절대적 계선을 정하고 전호들을 굳건히 굴설하고 1951년 봄부터 크다란 전투동작이 없이 상호 전투원들의 도덕적 사상성을 마비할 목적으로 각종 수단들을 리용하여 대적 선전 사업을 강화하면서 빈번히 적후 정찰사업을 강화하였다. 군인이란 전쟁이 없이 장기간 전연에 배치되여 아무리 전투 태세를 보전하려 하여도 긴장한 전투행동이 없으면 반복 맥빨이 풀리고 신경이 마비되여 만일 부패한 사상이 전염되여 규율의 와해되는 법이다. 전쟁이 시작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말할것도 없이, 농촌경리마저 파괴되여 남의나라 구호물자를 바라보고 사는 형편에서 전연 부대들의 공급-보장 문제는 아주 저열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1951년 겨울부터 인민군대 내에는 장질부사 전염병이 대폭발 병되여 많은 군부대들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당시 일내에 무장통일을 하려고 허언장담하며 수백만 인민을 동원하여 전쟁의 불길속에 빠지게 하였으나 남한 인민들이 북한 공산권을 원하지 않았고, 침략당한 그들의 제도와 인민의 자유를 [illegible]기위하여 동원된 유엔군이 강하게 남한땅을 경계하자, 북한 당국은 하는수없이 정전담판을 열고 정전을 제의하게 되였다. 이렇게 무장투쟁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되자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지도하에 그 전략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실력있는 반대파들을 빼라지 교묘한 술책으로 암살, 허위공판으로 처단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사상검토 운동을 벌리게 하고 모든 간부들을 처단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사상검토운동은 무자비한 간부청산 정책이였다.

1956년에 당선되여 남한간부, 중국항일투쟁간부들의 청산
이 거의 종말되자 소련출신 연안군 간부들을 청산하기 시작
하였다. 사상검토 운동에서 소련파에 대한 기본 "죄행"은
소련가족주의, 소련사대주의 그 외에 전쟁시기에 "어떤-
어떤" 지시들을 잘못주어 로선이 실패되였다는 트집이였다.
인민군대 내에서 복무한 소련출신 간부들은 장령급으로
만 하여도 20여명이 넘었었다. 김학천 소장은 제2군단
정치부장으로서 1958년에 동부전선 정치부장 겸 군사위원
인 김철우 소장이 철직제대되여 자강도 도인민위원회 부장
으로 강직되자 다음차례는 반드시 자기차례라는 것을 누
가 말하지 않아도 뻔히 내다보이는 일이였다. 이런 환
경에서 사상검토 회의에 걸려 몇달동안 고생한 다음에
철직제대되여 하북농촌 정배사리에 내보내기 전에 자
원적으로 군대에서 제대시켜 소련으로 도루가게 하여
달라는것이 상수였다. 이렇게 계획잡고 김학천 소장은
총정치국장 허봉학에게 인민군대에서 제대시켜 소련
으로 귀국시켜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청원도 아주
순조롭게 접수되여 내외상의 결재를 받아 인민군대
에서 제대된후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의 수속으로
귀국허가가 나온 다음 1959 6월에 모스크바에
돌아온 후 소련군대의 제대 수속으로 소련군 중좌의
칭호로서 소련군 년금생으로 제정되였다. 자기 친척,
고향친구들이 살고있는 우즈베크 공화국으로 방향을 잡아
타슈켄트에 와서 멈춘다음, 이곳 정부의 주선으
로 무상으로 살림 사택을 배정받았으며 아이들로
대학에 수속하고 자기와 부인은 취직수속도 하였다.
김학천 선생은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였으며, 조국의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념원하였으나 고독한 생활은 하지 않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우즈벡공화국 건설성 설계국 관리부장으로 일하시다가 1978년 6월 30일에 별세하시였다.

김학천 선생이 별세하신후 사모님 유돈나 영은 금일까 몸건강히 자기 장남과 같이 계시는바, 장남 김 그리고리는 우즈베크 가스도관 배설관리국에서 책임 동력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차남 김 알렉산드르는 타슈켄트시 함자군 내무부 부부장으로 위신있게 출근하고 있다. 김학천 선생은 자기 념원, 조국의 통일을 보시지 못하고 눈을 감으시였지만 선생의 아들 형제 그리고리와 알렉산드르는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위해 '조국평화통일 구국전선'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있다.

1997년 5월 2일.